

STX에너지, 원유 · 가스 확보 총력

석유공사와 함께 미국기업 원유광구 인수 ... 매장량 1200만배럴 추정

STX에너지가 매장량이 1200만배럴에 달하는 미국의 원유 광구 및 운영권을 인수했다.

STX에너지는 석유공사의 미국지사인 Ankor E&P와 공동으로 미국 Renaissance Petroleum으로부터 미국 Alabama의 Escambia County에 있는 석유광구 지분과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12월16일 발표했다.

인수지분은 46.75%에 인수금액은 5500만 달러이며, STX에너지와 Ankor E&P의 지분율은 각 50%로 알려졌다.

Alabama 광구는 약 304km²(9180만평)에 원유와 가스가 5대1의 비율로 매장돼 있다.

매장량을 석유로 환산하면 1200만배럴에 달하며 현재 2개 시추공에서 하루 약 5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.

STX에너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27개 공을 추가 개발하면 하루 최대 5000배럴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생산 추이와 유가 전망을 고려할 때 Alabama 광구에서 15년간 총 15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.

STX에너지는 Ankor E&P와 별도의 전문법인을 설립해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.

이병호 STX에너지 사장은 “8월 캐나다 가스광구 인수에 이어 미국의 원유광구를 인수함으로써 균형적인 석유 · 가스 광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”며 “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55%를 차지하는 멕시코만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북미지역 원유생산 본산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

STX에너지는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도 광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 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17>